

삼성·LG, AI 서버용 기판 확대... 글로벌 시장 정면승부

삼성전기 AI 분야 무게중심 이동
FC-BGA 풀가동 전제 증설 검토

LG이노텍 AI·모바일 투트랙 전략
이르면 2028년 유리기판 양산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LG이노텍 구미사업장 전경.

LG이노텍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가 반도체 기판 시장의 글로벌 판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일본과 대만 업체들이 선점해온 고사양 기판 시장에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국내 부품사들의 존재감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6일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드마켓츠에 따르면 글로벌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시장은 2025년 23억달러에서 2026년 24억6000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AI 가속기, 네트워크 칩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모바일 중심이던 기판 수요도 데이터센터와 고성능컴퓨팅(HPC)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이미 무게중심을 AI 서버 쪽으로 옮긴 상태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지난 1월 CES 2026 현장에서 FC

-BGA 수요 가운데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비중이 60~7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삼성전기의 고객 수요가 생산능력을 50% 이상 웃도는 것으로 전해지며 기판 시장 재편도 AI 인프라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LG이노텍은 모바일용 고부가 기판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AI 서버용 기판으로 사업 축을 넓히는 이중 전략을 펴고 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기존 빅테크 고객사 외에 지난해 글로벌 AI 반도체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모바일 중심 사업 구

조에서 AI 서버용 기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판 시장 전반으로 경쟁 구도가 확대되고 있다.

먼저 일본 이비덴과 대만 유니마이크론, 킨서스 등은 이미 AI 서버용 고사양 기판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대만 업체들은 최근 AI 서버용 고다층 기판 수요 확대에 맞춰 생산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으며, 일본 업체는 고성능 프로세서용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ABF) 기판 증설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해외 기업들은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 시장 재편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만 유니마이크론은 올해 설비투자 계획을 당초보다 75% 확대했고, 킨서스와 일본 이비덴 역시 대규모 증설 계획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기는 하반기 FC-BGA 풀가동을 전제로 증설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차세대 승부처로 꼽히는 유리기판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시장은 2025년 2억2800만달러에서 2031년

5억7200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AI 가속기와 고성능컴퓨팅(HPC) 수요 확대에 따라 유리기판이 차세대 패키징 경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이노텍은 주주총회에서 빠르면 2028년 유리기판 양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삼성전기 역시 AI 서버용 고사양 기판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차세대 기판 기술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기존 FC-BGA 시장 주도권 경쟁과 별개로, 유리기판 양산 시점과 고객사 확보 여부가 중장기 시장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모바일 신제품이 기판 시장을 좌우했다면, 올해부터는 AI 서버 투자와 글로벌 고객 확보 여부가 시장 판도를 바꾸는 핵심 변수"라며 "국내 부품사들이 일본·대만 중심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느냐가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유가 충격에 친환경 연료 급부상... 전기차 시장 새 국면

소비자들 유지비 부담 가중
가성비 전기차 판매량 급증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다양한 프로모션과 고유가 현상으로 막연한 화재 공포로 시작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완성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1분기 전반에 걸쳐 이어지던 성장세가 지난달 더 가팔라지면서 전동화 차량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현대차·기아의 합산 전기차 판매량은 2만3996대를 기록했다. 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지난해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현대차 아이오닉 5

(1만2169대) 대비 약 두 배 늘었다.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은 7809대로 전년비 38% 상승했고, 기아 전기차도 전년비 148.6% 늘어난 1만6187가 팔렸다. 기아는 지난해 EV5와 EV6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공격적 판매에 나선 만큼, 판매량이 크게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도 가성비(가격

대비성능) 전기차 모델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BYD의 소형 전기차 돌핀은 누적 계약대수가 2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YD는 국내 출시하는 돌핀의 기본 모델 2450만원, 액티브 트림 292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돌핀은 해치백 모델로 한국GM 쉐보레 볼트EV와 유사

한 크기를 갖추고 있다. 돌핀은 BYD를 대표하는 글로벌 주력 소형 전기차로 이미 유럽에서 성능을 검증 받았다. 업계에서는 휘발유, 디젤 가격이 폭등하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올해 1월부터 모델 3과 모델 Y 등 주요 모델 가격을 최소 300만원, 최대 900만원까지 인하했다. 그 결과 테슬라 3월 한 달 동안 1만 1130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월간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흐름이 전기차 판매의 성장세를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전쟁이 중단되더라도 유가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유지비 부담이 낮은 전기차 판매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인텔릭스는 에스원과 '웬니스 서비스 영역 내 비전 AI 기반 보안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K인텔릭스

SK인텔릭스 내달 AI 보안 영상 서비스

SK인텔릭스는 에스원과 '웬니스 서비스 영역 내 비전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SK인텔릭스는 협약을 바탕으로 다음달 웬니스로봇 '나무엑스'(NAMUHX)를 활용한 AI 보안 영상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솔루션은 로봇이 직접 이동하며 상황을 감지하는 보안 체계를 구현한 것이 핵심이다. /차현정 기자

LS일렉트릭, 美 빅테크 데이터센터에 초고압 변압기 공급

7026만달러 규모 계약 체결

LS일렉트릭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맺으며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자회사 LS파워솔루션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약 7026만 달러(약 1066억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LS파워솔루션은 미국 중부 지역에 구축되는 빅테크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용 마이크로그리드에 345kV급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한다. 공급 기간은 2027년 4분기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다.

LS일렉트릭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밸류체인 전반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데이터센터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에 4600만달러 규모의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자회사를 통해 초고압 변압기 공급까지 맡게 되면서 송·배전을

아우르는 전력 인프라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LS파워솔루션은 지난 2024년 LS일렉트릭에 인수된 초고압 변압기 자회사다. 지난해 KOC전기에서 LS파워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54kV 기술력과 설비를 보유하고 한전에 초고압 변압기를 납품해온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LS일렉트릭에 인수된 이후에는 생산 품목을 345kV급까지 확대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고객 기반을 넓히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차 "뽀로로와 운전하세요"

현대차가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를 품는다.

현대차는 아이코닉스와 협업해 신규 디스플레이 테마 '뽀로로 즐거운 기차 여행', '다요 알록달록 차고지', '잔망루 피 오리지널'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테마를 적용하면 시동을 걸고 끝 때의 애니메이션, 계기판, 내비게이션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캐릭터 디자인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 차종은 아이오닉9, 디올 뉴 넥쏘, 더 뉴 아이오닉6, 2026 쏘나타 디엡지 등이다. /양성운 기자